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통합과 협력을 선택하다

12월 15일부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의 각국 정상들과 대표자들은 브라질 살바도르 지 바이아 주(州)의 코스타 두 사우이페에 모여 평등 및 민중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의 완전한 통합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동의 중심의제는 올해 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제안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정상회의(CALC)에 대한 것이다. 이미 각국 정상들은 미주기구(OEA)나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에서 자리를 함께 한 경험이 있지만, 미국, 캐나다, 스페인 및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상들만 한 회의실에 모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 지역 국가들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 미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최근 남미국가연합의 개입으로 볼리비아의 심각한 내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된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예견되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정상회의(CALC)의 의제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합의 대안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AFP에서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정상회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다.(2008.12.16. 《ALBA》)

■ 밀림 관련 법정 다툼, 파라과이 원주민들을 위한 승리로

실제적으로 외부 세상과 접촉 없이 생활해 온 파라과이의 한 원주민 부족인 토토비에고소데(Totobiegosode) 부족은 인권단체들을 통해 밀림을 파괴하고 있는 한 브라질 기업과 법정 소송에서 승리했다. 원주민 인권 보호 단체인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파라과이 북서부 삼림 지대에 살고 있는 아요레오(Ayoreo)족 계통의 토토비에고소데 부족은 최근 브라질의 두 기업이 빠른 속도로 이들이 살던 땅을 불도저로 벌목을 하여 올해에만 6천 헥타르의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가족끼리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법정 싸움을 시작한 것은 지역 단체인 GAT(Gente, Ambiente y Territorio)였는데, 브라질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토토비에고소데 부족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이 소송의 결과, 이번 주 목요일 파라과이 환경부 장관은 두 기업 중 하나인 야과레테에 대한 벌목 특별 인가를 말소했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의 캠페인 기획자 조나단 매조워는 자금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삼림 벌목을 자행한 지주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증표라며 소송 승리를 환영했다. 하지만 파라과이 및 브라질의 삼림 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자본 창출을 위해 삼림을 파괴하는 추세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008.11.14. 《CNN world》)

■ 쿠바 정부, 블로거들의 오프라인 모임 금지

쿠바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블로거들의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유명 블로거 요아니 산체스를 소환했다. 요아니 산체스는 자신의 블로그 'Y 세대'에 올린 글을 통해 내무부 요원 둘이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자신을 소환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쿠바 정부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모임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우자인 레이날도 에스코바르(Reinaldo Escobar)와 함께 요아니는 2007년에 '쿠바로부터'(Desde Cuba)라는 포털을 만들었고 자신의 블로그에 카스트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블로그의 월평균 방문자는 천이백만 명에 달하지만 정작 쿠바 내에서는 지역 서버들로부터 차단되어 있어 손에서 손으로 글들이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아니는 6개월 전부터 정부의 처벌이 두려워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모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소환당했다. 이미 지난 5월 요아니는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가 '오르테가 이 가세트 상'을 수여했을 때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 정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블로그 'Y 세대'는 지난 주 독일 TV 방송사 도이치 벨레가 수여하는 '뵉스 상'을 통해 2008년 최고의 블로그로 선정되기도 했다.(2008.12.5. 《Perfil》)



■ 우루과이, 낙태 합법화법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우루과이 의회는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원 및 하원 의원 각각 5분의 3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며 결국 부분적 낙태 합법화 법안에 대한 타바레 바스케스



(Tabaré Vázquez)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지 못했다.

바스케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여성들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며 항의했으며 가톨릭교회 및 보수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다.

우루과이에서는 해마다 3만 명 이상의 여성이 적절한 의료수단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시술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인테르콘솔트(Interconsult)에 따르면 일주일 전의 설문조사에서 57%의 우루과이의 국민이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42%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 정부성향 의원들의 지지로 승인된 낙태 합법화 법안은 여성에게 건강 및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임신 12주 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008.11.20. 《Telesur》)

■ 칠레, 35년 만에 귀국한 감금실종피해자를 둘러싼 논란

인권침해 및 정치 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화해보상재단 보고서에 감금실종피해자로 등록된 헤르만 코프레 마르티네스가 실종된 지 35년 후 지난 수요일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마르티네스의 아내는 지난 91년 국가화해보상재단에 남편을 실종자로 신고했고 재단은 조사를 통해 1996년 공식적으로 마르티네스를 감금실종피해자로 등록한 바 있다. 마르티네스는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동안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마르티네스의 아들은 아버지의 귀환을 내무부 인권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감금실종피해자가족모임(AFDD)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마르티네스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조사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감금실종피해자가족모임 회장 로레나 피사로는 정부 및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마르티네스가 자신이 감금실종피해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와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2008.11.17. 《Terra》)